

#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 자립지원

### 정읍시 21~25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행정 도우미·복지 일자리·최중증 공공일자리 등 121명

정읍시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나섰다.

정읍시는 취업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1~25일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행정 도우미) 전일제 35명, 시간제 10명, 참여형(복지 일자리) 66명,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10명 등 총 121명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북형 권리중심형’ 일자리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참여

자는 내년 1월~1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와 환경미화,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물론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민원인과 ‘양방향 문자서비스’

### 담당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해결 소통 효과...이용요금 4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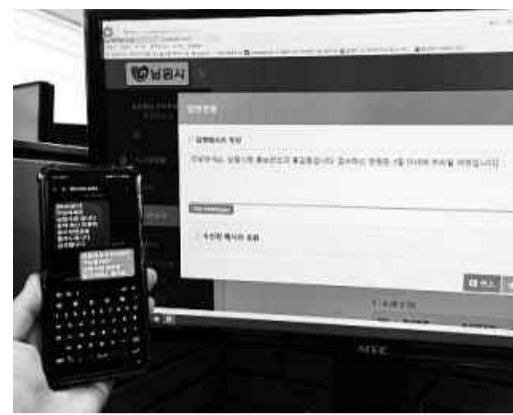
남원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민원인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시는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문자메시지에 민원인이 바로 답장 또는 문의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도입,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개월 동안의 시범운영 결과 민원인의 회신 답변을 받기 위해 노출됐던 담당공무원의 핸드폰번호가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로 발송됐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기도 했다.

또 서비스 개발업체와의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KT와 직접 이용료 단가계약을 체결, 기존 단가계약보다 이용요금을 평균 40% 절감시키는 등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남원시의 문자발송건 수는 17% 증가하며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졌고 문자



남원시의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모습.

발송 비용 역시 18% 절감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통해 시민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전국 어린이 판소리왕 서울 구룡초 한나예 양

### 고창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심청가 중 배는고파’ 열창 ‘대상’ 광주 송원초 이초아 양 우수상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인 전북 고창의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에서 서울 구룡초등학교 6학년 한나예 양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4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제35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가 열려 ‘심청가 중 배는고파’ 대목을 열창한 한나예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23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본대회 전날 동리국악당에 모여 예선을 치렀고 이중 7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펼쳤다.

대상을 차지한 한나예 양 외에도 최우수상은 전주 효림초 5학년 김선재 군, 우수상은 대구 두산초 4학년 성유진 양과 대전 어은초 6학년 손유지 양, 광주 송원초 3학년 이초아 양이 받았다.

장려상은 하동 화개초 5학년 김사랑 양, 진도 진도초 6학년 이다은 양이 차지했다.



‘제35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울 구룡초 6학년 한나예(앞 왼쪽 네번째) 양이 함께 경합을 펼친 입상자들을 비롯해 심덕섭(뒤 왼쪽 두번째) 고창군수, (사)동리문화사업회 이만우(뒤 왼쪽 세번째) 이사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대상을 받은 한나예 양 “피리과 장구를 배우는 오빠들이 국악을 통해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소리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소리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내장산 3개 탐방로 다음달 15일까지 통제

정읍 내장산국립공원(공원사무장 윤대원)이 가을철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를 오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 출입이 임시 통제되는 구간은 가지봉 능선삼거리-순창새재,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백학봉 능선(헬기장) 등 3개 구간 총 7.5km이다.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와 함께 공원사무소는 산

불예방활동과 함께 통제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에 대한 무단입산과 인화성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순찬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뭄이 가는 건조한 가을 날씨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의회, 의학전문대학원 유치 특위 구성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제공>

### 강인식 위원장·이기열 부위원장

남원시의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 운영에 나선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 위원장에는 강인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위원에는 소태수·김길수·염봉삼·오동환·김정현·이숙자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특위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국회 및 관계 부처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방문 활동을 통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게 된다.

강인식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농업인 공익직불금 358억 지급

### 1만2900명 대상...소농 직불금 47억·면적 직불금 311억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10일가량 앞당

겨 지급되는 직불금은 읍면동별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주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900여명의 대상자를 선별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대상은 전체 30%에 해당하는 4000여명으로 총 지급액은 47억이다.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대상은 70%에 해당하는 8900여명으로 총 31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등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